비교문화연구 제22집 1호, (2016) pp. 541~583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산업화 역사, 사회경제적 분화, 그리고 노동자의 저항:
베트남 남부 빈즈엉 성의 민족지적 사례

채수홍*

이 글은 베트남 남부 빈즈엉에서 연구자가 2008년 여름부터 2010년 초까지 실시한 현지연구의 기록을 민족지적으로 구성해본 것이다. 이 시기에 연구자가 초점을 맞춘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빈즈엉의 산업화 역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빈즈엉의 노동자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항의 양태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하는 산업화 역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원주민과 이주민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동시에 이주민 노동자 사이에서도 숙련도에 따라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자 하였다. 셋째, (특히 미숙련) 이주노동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열악한 정치경제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활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빈즈엉 지역의 이와 같은 역사적,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을 탐색하면서 이 지역 노동자가 저항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한계에 대하여 성찰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요개념〉: 산업화 역사, 사회경제적 분화, 베트남, 노동정치, 저항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1. 문제제기

> 좀 잦아들던 파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자 주춤하던 노동쟁의가 올해(2009년) 후반기부터 불붙기 시작하고 있다. '가난의 병목현상(ngheo lai gap cai co)'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파업을 몇 번이고 일으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말 어려운 것은 파업이 바람을 타고 번져간다는 것이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어디서부터 불을 꺼야 되는지 알 수 없다(빈즈엉 성의 노동조합 간부).

연구자가 2008년 여름 베트남 남부의 주요 공단을 방문했을 때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정책)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노사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술을 자주 접했다. 실제로 당시에는 호치민을 필두로 인근 동나이(Dong Nai), 빈즈엉(Binh Duong), 롱안(Long An) 등지에서 파업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파업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10여 년을 유지해온 저임금 정책과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노동자 가구경제의 재생산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예측과 달리 2009년 여름에 동일 지역을 방문했을 때 파업은 눈에 띄게 잦아들어 있었다. 베트남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2008년 여름에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노동자가 임금보다 일자리를 먼저 걱정해야 할 만큼 노동시장이 악화된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Awad 2009). 이와 같이, 경기와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노동자의 저항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후 파업의 양적 추세를 보아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의 파업은 2010년 이후 세계경기가 회복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경기가 가장 좋았던 2011년에는 공식적으로만 약 1천여 건을 기록하게 된다. 이후 세계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파업의 수가 해마

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채수홍 2013: 6-9 참조).

이처럼 경기와 노동시장이 베트남 파업의 양적 추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기 때문이야.”라는 대답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현지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의문을 갖게 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빈즈엉뿐 아니라 인근의 대형 산업지역인 호치민(Ho Chi Minh)과 동나이(Dong Nai)를 함께 현지연구하면서 세 지역이 공히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파업의 증감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파업의 증감 정도나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진술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1] 예를 들어, 동나이 지역은 세 지역 가운데 파업의 증감이 완만하고 강도는 센 반면에, 빈즈엉은 경기에 따라 파업의 부침이 심하고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었다. 동나이의 이러한 특수성은 빈즈엉과 비교할 때 산업화의 역사가 길고, 원주민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었다.

또한 빈즈엉 지역을 탐색하면서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 노동시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경력직 사원을 뽑는 구인광고가 여러 공장의 정문에 상시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종과 숙련정도에 따라 노동시장이 불균등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기하락에 따른 노동시장의 위축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빈즈엉의 노동자 집단 거주지를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

1) 호치민, 빈즈엉, 동나이의 노동보훈사회국의 통계를 보면 파업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8년의 남부 3대 공업지역의 파업 수는 호치민이 198, 빈즈엉이 213, 동나이가 183으로 빈즈엉이 가장 많았다. 반면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파업이 감소하기 시작한 2009년도 1/4분기에는 호치민이 48건으로 빈즈엉의 20건보다 2배 이상이 많았다. 파업 수의 부침의 흐름은 세 지역이 비슷하지만 빈즈엉의 증감폭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베트남 전체와 각 지역의 파업추세에 관해서는 채수홍(2013) 논문의 6-9페이지와 Do Quynh Chi(2008)의 발표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면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예상보다 열악함에 놀라게 되었으며, 과연 이들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빈즈엉 노동자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견디어 내는 데,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관념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가 현지에서 조우한 현상들과 이에 대한 성찰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았다. 왜 빈즈엉의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경기와 노동시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까? 빈즈엉 내에서도 노동자에 따라 경기와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와 같이 빈즈엉 노동자가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의 노동자와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이들의 향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조건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의문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2008년 여름부터 2010년 초까지 실시한 현지연구의 기록을 민족지적으로 구성해본 것이다. 이 시기에 연구자가 초점을 맞춘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빈즈엉의 산업화 역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빈즈엉의 노동자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항의 양태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하는 산업화 역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3장). 둘째,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원주민과 이주민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동시에 이주민 노동자 사이에서도 숙련도에 따라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자 하였다(4장). 셋째, (특히 미숙련) 이주노동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열악한 정치경제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활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5장). 본 연구는 빈즈엉 지역의 이와 같은 역사적,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을 탐색하면서 이 지역 노동자가 저항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한계에 대하여 성찰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내용을 민족지적으로 재구성하여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베트남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가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탐구에 편중되어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채수홍 2003). 베트남의 최근 파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제적 요인과 파업의 추이를 연결시켜 설명하거나(예를 들어, Clarke S., Chang-Hee Lee, and Do Quynh Chi 2007; Do Quynh Chi, Vu Minh Tien, and Vu Thanh Duong 2011), 파업이 베트남의 노동정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예를 들어, Hansson 2003; Kerkvliet 2011; Tran 2007)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분석은 노동자가 파업을 통해 저항을 시도하게 되는 정치경제적 토대와 그 여파를 설명해내고 있지만, 노동자의 정치의식과 실천을 형성하는 데 특정 지역의 역사와 이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여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노동연구의 정치경제적 편향성을 고려할 때 근자에 들어 채수홍(2013)과 쩐(Tran 2014)이 베트남의 파업을 설명하면서 노동자의 의식과 실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전자는 베트남 파업의 복합적 요인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면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역할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베트남 노동운동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노동자가 저항을 일으켰던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Chae 2015: 386- 387).

많은 인류학자들이 특정 국가-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여건에 주목하여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삶에 대한 민족지를 기술해온 전례에 비추어볼 때, 최근 베트남의 파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방향의 민족지가 출간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유감이다. 본고는 향후 베트남 노동자의 최근의 삶을 조명한 보다 완결된 형태의 인류학적 민족지가 탄생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2. 연구과정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08년 여름에 한국인 공장매니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호치민 인근의 공단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파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으며 노동자의 불만의 성격과 강도도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이 베트남 노사관계를 특징지어온 조합주의(corporatism)(Norlund 1997; Pravda and Ruble 1986)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베트남의 정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2009년 3월부터 최근 베트남의 노동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 당시 베트남 노동문제의 변화에 대한 서구학계와 NGO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예를 들어, Kim Jee Young 2007; Lee Chang-Hee 2006; Nadvi, Thoburn, Bui, Nguyen, Nguyen, Dao, and Blance de Armas 2004; Wang 2005). 특히 국제노동기구(예를 들어, ILO; VUFO-Resource Center), 인권단체(예를 들어, Human Rights Watch), 그리고 경제관련 자문단체(예들 들어, US-Vietnam Trade Council; UNI-Apro; SYRMA Technology; The Top Consultant)가 운영하는 각종 웹사이트에 많은 자료와 글이 게재되고 있음은 인상적이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 파업이 베트남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학술적,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2009년 7월 8일에서 8월 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때의 목표는 호치민의 투득, 동나이, 빈즈엉 세 지역의 파업의 정치적 성격을

비교·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세 지역의 한국계 공장, 지역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의 집단거주지를 두루 방문하면서 연구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세 지역의 상이한 산업화의 역사는 물론 주요업종, 파업빈도,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지역노조의 성격, 노동자의 출신지역, 노동자의 생활여건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세 지역의 파업을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씩 순차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2010년 1월 7일에서 2월 12일까지 약 5주 동안 빈즈엉 성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크게 세 부류를 주요 현지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빈즈엉의 비엣싱(Vietsing, VSIP), 송탄(Song Thanh) I, 송탄 II, 미푹(My Phuc) I, 미푹 II, 미푹 III 공단과 이들 공단의 외곽에 위치한 공장들을 방문하였다. 이 시기에 빈즈엉에서 가동 중이었던 13개 공단 가운데 앞의 세 공단은 성의 중심지인 투저우못(Thu Dau Mot)에 인접하여 있고, 입주한 업체 수도 많으며, 규모가 크고,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투저우못에서 차로 30분 이상 가면 만날 수 있는 미푹 I, II, III 공단은 대규모 부지에 신규입주를 받고 있는 신흥공단이었다. 연구자는 이 공단들에 입주해 있거나 외곽의 공장지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20여 개의 한국계 섬유, 의류, 봉제 업체를 주로 방문하여 경기에 따른 경영상태, 노무관리방식, 그리고 파업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이들 공단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이주민 노동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다. 냐쪼(Nha Tro)라고 통칭되는 이주민 노동자의 집단 거주지들을 탐방하면서 30~40여 명의 노동자와 1~2시간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다. 길거리 상가의 뒤편에 군집해 있는 방을 살펴보고 거주 노동자의 협조를 얻어 출신지, 가족관계, 사회적 연결망, 가구경제, 노동조건, 노동과정, 파업경험, 여가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사진 1〉 빈즈엉의 공단: 비엣흥공단, 비엣싱공단, 미푹공단

이 과정에서 이주민 노동자가 기숙사보다 냐쪼를 선호하는 이유, 냐쪼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 파업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 등을 파악한 것은 이 글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셋째, 연구자는 빈증엉 성의 노동관련 부서, 빈즈엉 지방정부의 산하에 있는 공단관리회사, 지역 노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노동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면담하였다. 이들의 협조로 빈즈엉 지역의 산업화의 역사와 특성에 관한 자료와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와 관련 조직들이 이주민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발생하는 파업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민 노동자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빈즈엉과 관련된 문헌자료 및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책자와 논문은 주로 빈즈엉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주제로 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구입하였다. 신문기사는 빈즈엉의 노동쟁의와 파업, 이주민 노동자의 삶, 구정의 보너스와 귀향 등을 기술한 것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은 자료의 수집과 분류는 연구자가 당시에 단기간의

현지연구를 통하여 알 수 없었던 정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2008년 여름에 시작하여 2010년 초에 실시한 현지연구의 자료를 다시 들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노동자의 저항과 관련하여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3. 빈즈엉 산업화의 역사와 특징

빈즈엉[2]은 베트남의 동남부에 위치한 성으로서 남서쪽으로 사이공 강을 끼고 호치민시와 동쪽으로 동나이 강을 끼고 동나이와 만나는 곳이다. 사이공 강의 중간부분이 빈즈엉을 흐르고 있으며, 동나이 강의 540km 가운데 약 84km가 빈즈엉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빈즈엉을 사이에 두고 양 강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빈즈엉에서 북으로 향하면 빈푹(Binh Phuoc) 성을 통과하여 베트남 중부의 산악지대에 다다를 수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 떠이닝(Tay Nhinh) 성을 만난 뒤 캄보디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처럼 빈즈엉은 남부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룬 호치민과 동나이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메콩 델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주요한 농업지역으로도 간주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척박한 땅”(Trinh Thuc Huynh et al. 2003: 25)으로 인식되어 온 곳이다.

빈즈엉이 이처럼 오랫동안 척박한 땅으로 남아 있었던 데는 역사적

2) 빈즈엉은 통일 이전에 행정구역상 푹롱(Phuoc Long)과 함께 빈푹(Binh Phuoc)에 속했던 지역이다. 1976년 통일 이후 새 정부는 빈즈엉(Binh Duong)과 빈푹(Binh Phuoc)을 송베(Song Be)로 합하였다가, 1996년 본격적으로 산업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빈푹의 4개 지역을 빈즈엉에 포함시킨 채 다시 빈푹과 빈즈엉으로 분리하였다. 당시에는 성의 소재지인 투저우못(Thu Dau Mot)과 3개 현(Ben Cat, Tan Uyen, Thuan An)으로 구성되었지만 지금은 8개의 현으로 확장되었다(Trinh Thuc Huynh et al. 2003: 27).

인 이유가 있다. 응우엔(Nguyen) 왕조가 약 300년 전 남부를 장악하기 이전에는 왕조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은 채 참족과 크메르족 등이 사는 소규모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프랑스 식민시대를 거치면서도 고무농장으로 전환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계경제(subsistence economy)를 유지하였다.

빈즈엉은 프랑스 식민지배가 종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트남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들게 된다. 지금의 송탄(Song Thanh) 공단이 위치해 있는 투언안(Thuan An) 현에는 남부베트남 정부의 가장 큰 군기지가 있어 약 1만 명이 주둔을 하며 사이공(지금의 호치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황무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북쪽의 떤위엔(Tan Uyen)에는 남부공산군(NLF)의 기지가 있어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곳이다. 이 시기에 빈즈엉의 원주민들은 남부베트남군의 기지에서 반출되거나 남부공산군이 약탈한 미군 군수물자로 생활을 했으며 안전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호치민 가까운 곳에 과수원이 유명했고 북쪽에는 소규모로 논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전투지역의 한 가운데 위치한 관계로 산업화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빈즈엉의 이러한 역사는 호치민은 물론이고 인근 동나이와도 대조된다. 동나이의 경우 전쟁 중에도 중국계(Hoa)가 건설한 남부 최대의 공단이 성의 소재지인 비엔화(Bien Hoa)에 건재했다. 또한 1954년 제네바 협정을 계기로 미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북부 공산정권의 종교 박해를 우려하여 정착시킨 약 1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들의 자손이 통일과 개혁개방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시기 동안 뿌리를 내려 원주민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현재도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는 장치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공장노동자 가운데 원주민의 비율도 빈즈엉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빈즈엉은 통일 이후에도 한참 동안 국가경제에서 주변부 위치를 점하였다. 산업이라고 해야 가구, 도자기, 칠기 같은 수공예 산업이

전부였고(Trinh Thuc Huynh et al. 2003: 255-268 참조), 농업도 보잘 것이 없어 '강성개혁(hard reform, 1975~1985)' 시기(Marr and White 1988: 4)에 집단농장으로 전환하는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미곡생산을 통한 식량자급자족이 국가의 주요과제였기 때문에 고도가 60m에 가깝고 진흙탕이 많아 쌀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빈즈엉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통일 이후 10년 동안에도 빈즈엉은 고무농장, 과수원, 수공예 산업으로 연명하는 유기된 땅이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던 빈즈엉이 오늘날 25개의 산업공단과 12개의 공업밀집지역으로 상전벽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권력의 결단 덕택이었다. 빈즈엉 공산당을 이끌던 개혁주의자이자 전 국가주석인 응우엔 밍 찌엣(Nguyen Minh Triet)이 당시에 빈즈엉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찌엣은 개혁개방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의 하나이자 당시 수상이었던 보 반 키엣(Vo Van Kiet)의 총애와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산업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이 1996년 6월 싱가포르의 당시 수상 리콴유(李光耀)와 함께 비엣싱 공단(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VSIP)의 건설에 합의하면서 공단건설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이후 송탄(Song Thanh) I 공단과 비엣흐엉(Viet Huong) 공단이 잇달아 승인을 받는 등 빈즈엉 지역에 공단건설의 붐이 일어나게 된다.

빈즈엉이 단기간에 대규모 산업지대로 변모한 것은 일부 정치인의 정치력 외에도 지정학적 위치가 적합했기 때문이다. 빈즈엉은 과거 남부공산군의 거점으로 소위 국가유공자가 많아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지역이었다. 게다가 남부의 주요 산업지대인 호치민과 동나이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벨트를 형성하는 데 안성맞춤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다. 무엇보다, 산악지대도 아니고 주요 농업지역도 아니어서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없었다. 이런 입지조건을 갖추고 정치권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불과 15년 만에 남부의 3대 공업지역의

하나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지역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3)]

빈즈엉이 이루어낸 단기간의 "성공적인" 산업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철저하게 의존한 발전이었다. 빈즈엉 공단이 외국자본에 의한 그리고 외국자본을 위한 공단이라는 것은 2008년의 통계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해에 유치한 838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613개가 외자에 의한 것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4억 달러였다. 반면 베트남 국내 자본에 의한 프로젝트는 1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해 외국인 투자의 3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빈즈엉 산업화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자본이 주로 섬유, 봉제, 전자, 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되었다는 점이다. 주로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계 기업이 국내에서 사양화된 산업을 이전해와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였다. 2009년 말 한국인상공인연합회(Kocham)에 등록된 214개의 빈즈엉 소재 한국계 업체도 섬유나 의류 등의 소규모 제조업의 비율이 92%에 달했다. 이 가운데 90개의 섬유업종만을 대상으로 놓고 볼 때[4)] 섬유업으로는 중소규모인 2,000명 미만의 기업이 71개에 달했으며 2,000명 이상의 기업은 불과 10개 정도에 불과했다. 공장 한 동에 대개 20개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한 라인에 50~1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장을 두 동 이상 가진

3) 베트남 정부는 매년 PCI(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라는 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방정부의 발전정도를 비교 평가한다. 빈즈엉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꽝남-다낭(Quang Nam-Da Nang) 지역에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빈즈엉 지방정부를 긴장시켰다.

4) 2010년 초 현재 빈즈엉의 한국기업의 수는 외무국에 따르면 420여 개, 한국계 은행의 계좌에 의해 추산해 보면 350여 개, 한국인 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된 업체 수는 214개였다. 대략 빈즈엉에는 350~400개의 한국계 기업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후 빈즈엉의 한국업체의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해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식 투자를 하지 않고 현지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 명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표 1〉 2009년 빈즈엉 한국계 섬유업종의 노동력 규모

빈즈엉 섬유업		
구 분	사업장 수	한국인 직원
50명 미만	10	1명(2*), 2명(5), 3명(2), 4명(1)
50~100명	4	2명(1), 4명(2), 6명(1)
100~500명	26	1명(3), 2명(3), 3명(5), 4명(3), 5명(3), 6명(1), 7명(2), 10명(5), 13명(1)
500~1,000명	21	1명(1), 2명(6), 3명(5), 4명(4), 5명(3), 6명(1), 7명(1)
1,000~2,000명	10	3명(1), 5명(4), 6명(1), 7명(1), 8명(1), 10명(1), 12명(1)
2,000~5,000명	8	2명(1), 7명(1), 8명(2), 9명(1), 11명(1), 14명(1), 20명(1)
5,000~10,000명	2	33명(1), 70명(1)
10,000~20,000명	0	
미 상	9	
총계	90	

출처: 한인상공인연합회 2009년 회원목록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 회사의 수

기업이 10~15%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빈즈엉 산업화의 마지막 특징은 이주민 노동력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의 2010년 웹사이트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빈즈엉의 인구는 약 150만 명이 장기거주허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단기거주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허가 없이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가 약 50만~6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산업노동자의 수는 약 625,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이 베트남 내의 외지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였다. 초기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중부와 북부에서 이주해 왔으며, 이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오래된 공단인 비엣싱이나 송탄 등의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이후에 지어진 미푹의 3개 공단의 주요 노동력이 남부의 메콩델타 지역에서 이주해오고 있는 현상과 비교된다.

이와 같이, 노동집약적 외국자본과 이주민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의

결합에 의해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된 관계로 빈즈엉의 산업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외자에 의한 수출지향적 가공산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세계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7년 WTO 가입, 2008년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 등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다. 물론 세계경제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위기가 일국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하지만 선진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곳은 감기에 걸리고, 베트남은 감기로 드러눕는 현실이 문제였다. 세계경제체제에서 종속적인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상황은 다른 국가의 경제흐름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빈즈엉의 경제는 내생적인 산업기반이 있는 동나이나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호치민보다 대외변수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빈즈엉은 이주민 노동자가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산업화를 이루어 온 관계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가구가 재생산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공간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원활한 노동력의 공급을 보장받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임금도 적정하게 지불하고, 거주공간도 마련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적인 장치도 만들어 놓아야 이주민 노동자가 빈즈엉에 머무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빈즈엉의 산업화 과정은 이주민 노동력을 위한 이와 같은 제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노동력의 활용에만 치중함으로써 파업, 슬럼화, 반목과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부 특권층과 노동자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된다.

4. 빈즈엉의 사회경제적 분화: 원주민과 이주민

1) 원주민의 우월한 사회경제적 조건

빈즈엉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별하고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행정당국이나 미디어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양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통계의 편차도 크다. 빈즈엉에는 KT1부터 KT4까지 4가지 거주신분이 있다. KT4는 1개월, KT3는 6개월, KT2는 1년, 그리고 KT1은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원주민이란 KT1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적(nguyen quan)이나 출신지가 빈즈엉이 아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부에 머물다가 정착했거나 통일 이후 공산당의 지시로 이주해 온 북부와 중부출신의 주민도 많다. 그러므로 빈즈엉에서 원주민이란 여러 대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 집과 대지를 불하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나 최근에 집을 구입하여 KT1의 지위를 얻은 사람과 그의 가족까지 포함한다.

개발 초기인 1997년 빈즈엉의 인구는 78만이었다. 2010년 당시 빈즈엉의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15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70만 명을 상회했다. 불과 13여 년 만에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영주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민은 50~6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2010년 당시 빈즈엉의 산업노동자 60여만 명 가운데 80% 이상이 이주민 노동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주민의 소수만이 공단노동자였으며 반면 이주민은 대부분 빈즈엉의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빈즈엉 원주민의 다수가 공단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빈즈엉의 산업화 역사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대로, 빈즈엉

은 인근 호치민이나 동나이와 달리 90년대 중반까지 산업기반이 거의 없어 원주민 가운데 산업노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원주민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개발 덕택에 굳이 산업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농지나 고무농장이 공단으로 개발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대지와 주택을 활용하여 몰려드는 이주민을 상대로 돈을 벌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례 1〉 개발로 인한 원주민 경제의 변화

제곱미터 당 10만 동(5달러)에 불과한 농지도 있지만 도심은 이제 제곱미터 당 2천5백만 동(1,250달러)은 주어야 땅을 살 수 있다. 빈즈엉 사람은 토지보상을 받거나, 땅을 임대해 돈을 벌고 있다. 식당이나 가게를 열어서 서비스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보상을 받지 못한 고무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무가 1톤에 오천만 동 정도 하기 때문에 월수입이 4천 달러는 된다. … 빈즈엉은 척박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지역이었다. '손이 일해야 턱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tay lam ham nhai)' 곳이었다. 내가 태어날 때(1984년 생)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볼 것이라고는 고무농장밖에 없었다. 대학 다니는 동안 매년 고향에 올 때마다 (빈즈엉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하늘이 하사한 좋은 땅이라 사람이 잘 어울리는 화목한 곳(thien thoi dia loi nhan hoa)'이 된 것 같다(빈즈엉 출신 공무원, 2009년 인터뷰).

빈즈엉의 일부 원주민은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 덕택에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는 절친한 빈즈엉의 관료로부터 누구누구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례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안내한 비엣싱 공단의 주택가에는 10~15만 달러를 호가하는 주택이 단지를 이루고 있었다. 이 주택들의 소유자는 모두 베트남인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원주민이었다. 이 주택들은 대부분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매니저에게 세를 놓았는데 2010년 당시 월세가 800~1,200달러 정도였다. 공단 노동자의 거의 1년 월급에 해당하는 월세였다.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직원은 일부 원주민이 이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런 고급주택이 아니더라도 원주민의 대다수는 소유한 주택을 이주민 노동자에게 임대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원주민은 소유주택을 분할해서 길거리에 접한 부분은 상가로 활용하고 뒤쪽에 쪽방을 5~20여 개 만들어 세를 놓았다. 빈즈엉 공단들의 인근을 돌다보면 냐쪼(Nha Tro)라고 불리는 이런 주택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었다. 약 200미터 되는 골목에 평균 10여 개의 방을 가진 50여 개의 냐쪼가 줄지어 있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각 쪽방에 평균 3~4명이 살고 있어 이런 골목 하나에만 1,500~2,000명의 노동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원주민 집주인들은 쪽방 하나를 30~60만 동에 세를 놓았으며 집을 소유한 덕택에 월 300~600만 동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채수홍 2013: 19 참조).

원주민은 부동산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동시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빈즈엉의 군인, 경찰관, 소방관, 세무직원, 지방정부 관료, 노동조합 간부 등 공무원은 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많은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빈즈엉 정부가 모두 이런 '비공식 비용(chi phi khong chanh thuc)'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패한 부수입을 올리지 않고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연구자가 방문한 빈즈엉의 한국계 기업은 거의 대부분 여러 기관의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200~300만 동(100~150달러)을 주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공무원들에게 상당액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구정과 같은 명절에는 관례에 따라 공단관리사무소, 인민위원회, 세무서 등 주요부처에 선물이나 돈을 전달했다. 대부분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빈즈엉 공무원들은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부동산을 활용하여 수입을 올릴 뿐 아니라, 공식적인 월급은 적지만 여러 종류의 부수입을 올리는 특권층으로 인식되어 있었다(채수홍 2013: 20 참조).

물론 이처럼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요직에서 일하는 원주민은 소수였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아도 다수의 원주민은 이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조건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했다. 실제 일부 원주민은 카페, 식당, 옷가게, 식료품 가게 등을 열어 이주민 노동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지역연고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을 선점할 수 있었다. 공단의 관리공단이나 기업의 사무직은 물론이고 월급이 공장노동자에 비해 많고 일이 상대적으로 쉬운 경비직이나 운전직의 경우 빈즈엉 원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정부나 국영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계 기업에서도 이들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원주민의 경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고 이직 가능성도 적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든 공장 일을 하는 원주민은 소수에 불과했다. 최대로 잡아도 빈즈엉의 전체 공장노동자의 10~20%인 원주민 공장노동자의 경우에도 공장에서 기술을 숙련하고 싶어 일을 자청했거나, 공장에서 실직을 하더라도 가족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가 당시에 만난 원주민 노동자는 상당수가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어 월세를 낼 필요가 없었으며, 가족 중의 일부가 고무농장을 하고 있거나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있어 이주민 노동자와는 달리 공장노동 외에도 기댈 곳이 있었다.[5)]

연구자가 만난 원주민들은 자신이 이주민에 비하여 유리한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빈즈엉에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예를 들어, Blim and Rothstein 1992; Lee Ching Kwan 1998) 이미 입증하고 있

5) 물론 10~20%의 원주민 노동자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공장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체로 공장 외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부모와 살면서 집세 등을 절약할 수는 있었다. 따라서 이주민 노동자 거주지에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는 것처럼, 원주민의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자가 원주민의 유리한 생활조건과 이주민의 곤궁한 생활을 비교하면서 집요하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대부분의 원주민은 양자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합리화했다. 이들은 "이주민의 생활은 고향(의 어려운 생활)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거나 "빈즈엉의 빈곤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는 상향조정되어 있다."면서 이주민의 어려움을 축소해서 이해하려고 했다. 또한 "이주민도 생존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원주민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거나 "이주민이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주민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보다 심각한 것은 빈즈엉 인민위원회의 관료, 공단의 관리직원, 경찰을 위시하여 많은 원주민이 이주민을 여러 형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원주민은 자신과 이주민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이주민이 사회문제, 노동문제, 정치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편견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분화는 전자에 의한 후자의 타자화 과정과 차별을 수반하였다.

2) 열악해지는 이주민 노동자의 생계여건

빈즈엉 원주민의 주장과 달리 연구자가 목격한 이주민 노동자의 삶은 훨씬 열악하였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임금은 경제적 기반이 없는 이주노동자가 내핍한 생활을 전제로 가구를 겨우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이주민 노동자의 생활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연구자가 장기 현지연구를 하고 있던 1990년대 말 베트남 남부의

다국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인 가구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150~250만 동(100~167달러)이 필요했다. 당시 노동자의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을 다 합한) 임금이 100만 동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월급에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을 더하면 가구경제(household economy)를 꾸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0~250만 동인 반면 4인 가구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400~500만 동(240~300달러)이 필요했다. 따라서 4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노동자의 가구는 부부가 함께 전일제로 일을 해야 가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채수홍 2013: 15-17 참조).

2009년 여름과 2010년 초에 빈즈엉의 노동자를 면접한 결과 4인 가족이 생활을 하려면 500~600만 동(260~310달러)은 필요했다. 하지만 빈즈엉 노동자의 2009년 말 평균임금은 공식적으로 217만 동이었다(베트남 노동사회원호국 보고서 2009). 연구자가 한국계 공장을 방문하거나 구인광고를 참조하여 추산해 본 평균임금도 200~250만 동(110~130달러) 수준이었다. 물론 일이 힘들거나 숙련공을 구할 때는 300~390만 동(140~200달러)까지 수입을 보장한다는 회사도 있었다. 하지만 120만 동에서 시작해서 3개월 후에 잔업을 포함하여 200만 동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빈즈엉의 이주민 노동자는 부부가 함께 일해도 아이가 둘 이상 있으면 적자 없이 가구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아이가 한 명 있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겨우 가계를 꾸려 갈 수 있는 상태였다.

독신의 경우에는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혼자 살면서 200~250만 동을 받으면 150~200만 동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고향에 50~100만 동을 송금할 수도 있었다. 물론 고향에 송금을 하려면 개인의 여가생활이나 교육훈련비 지출 등은 삼가야만 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이가 여가생활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없이 공장노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즈엉의 공단에서 노

동력의 재생산이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노동력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들 20대와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개인생활을 희생하면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적어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을 때까지라도 공장의 임금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0년까지 이와 같이 젊은 미숙련 노동자가 아직은 북부, 중부, 메콩강 지역의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유의할 점은 이주노동자의 내부에서도 숙련도와 경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공장에서 반장 이상의 직급을 가지거나 기술이 뛰어난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예를 들어, 의류공장의 라인을 담당하는 반장의 경우 450~800만 동까지 받았고 공장장의 경우 1,000만 동의 월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이 이처럼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빈즈엉의 노동집약적 공장 특히 의류와 섬유 공장에서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공장끼리 숙련공을 구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기도 하고 숙련공이 임금을 많이 주는 공장으로 갑자기 이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계 공장주들은 임금을 조금 더 주면 통보도 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숙련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다. 미숙련공의 빈자리는 쉽게 보완이 되지만 숙련공이 없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숙련 노동자가 일정기간 경험을 쌓은 후 경력을 부풀려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했다.

〈사례 2〉 숙련공의 생활여건

7년 동안 한국계 Y 기업에서 일을 하다 얼마 전 해고 되었다. 연가를 12일 받았는데 휴가를 5일 더 썼다. 고향이 북부의 응에안(Nghe An)이다. 몇 년 만에 고향에 갔기 때문에 인사할 곳도 많고, 시간이 더 걸렸다. 숙련공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본보기로 해고를 했다. 회사에서는 여러 팀을 거느린 반장이었고 기본급 250만 동에 월 평균 500만 동 정도를 받았다. 아내도 같은 회사에 오래 다니고 있다. 월급은 기본급 150만 동에 350만 동을 받고 있다. 내가 오토바이도 몰고 씀씀이가 큰 데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데 100만 동이 든다. 월세는 50만 동을 주고 살고 있다. 부모가 고향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어 송금을 하지 않아 월 50~100만 동은 남길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저축도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직장을 잃어 좀 걱정이 된다. 해고를 당하면서 1년에 100만 동씩 7년분인 700만 동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 다른 공장을 찾아보아야겠다. 기술과 경력이 있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26세 의류공장 숙련공).

위의 〈사례 2〉에서 알 수 있듯이, 숙련공의 경우 미숙련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넉넉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사례 2의 숙련공은 아직 젊었을 뿐 아니라, 아내 역시 숙련공이었고, 자녀가 한 명이었고, 고향의 부모에게 송금을 할 필요도 없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문제는 빈즈엉의 공단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사실 일부 고위직, 기술직 숙련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숙련공은 미숙련공과 사회경제적으로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이주민 숙련공은 이주민 미숙련공과 마찬지로 냐쪼의 작은 방에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적은 돈이나마 저축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공장노동만으로 집을 구입해서 원주민처럼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기란 요원하게 보였다. 계속되는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상승으로 생활비가 치솟고, 소비시장의 발달로 점차 (예를 들어, 이동전화기, 오토바이, 냉장고, 냉방기 등) 소비물품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민 노동자가 숙련공이 된다고 해서 가까운 장래에 공장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가족상황이나 기술여건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빈즈엉의 이주민 노동자는 이처럼 공통적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열악한 생활여건을 공유하고 있었다. 월 평균 200~250만 동의 수입으로는 돈을 모으기 위

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빚 없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출을 해야 했다. 다시 말해, 질 낮은 생활여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예들 들어, 월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부분 2~6제곱미터의 좁은 방을 3~4명이 공유하며 살았으며, 35~60만 동의 방을 1인당 10~15만 동씩 나누어 지출해야만 했다. 식비도 한 끼에 최소한 1만 동 이상은 지출해야 하는 외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하루 두 끼를 쌀과 간단한 반찬 한 가지로(주로 값싼 생선이나 채소로) 해결해야 한 달 식비를 60~70만 동으로 줄일 수 있었다. 노동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론 파업까지 일으키는 이유도 평소에 열악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6)]

숙식을 해결하고 남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전기세와 물세를 내야 했다. 이주민 노동자는 kw당 4,000동의 전기세와 ㎥당 10,000동의 물세를 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 초 베트남의 한 방송국(VOV)의 보도에 따르면 빈즈엉에서 이주민은 원주민보다 비싼 전기세를 지불하고 있었다. 영주권이 있는 원주민은 사용량에 따라 kw당 500~1,000동의 전기세를 낸 반면, 이주민은 kw당 4,000동의 전기세를 내야 했다. 이주민 노동자는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물세까지 원주민보다 많이 내다가 2009년 3월 이후에야 비로소 중앙정부의 지시로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다(Ngoui Lao Dong 2009. 3. 7). 경제여건이 열악한 이주민이 더 많은 세금까지 내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연구자가 냐쪼에서 만난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인 한국 드라마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불만을 늘어

6) 한 조사에 의하면 2009년에 회사가 제공하는 한 끼 식사의 평균비용은 5,000~7,000동에 불과했다.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음식을 제공하는 회사가 58.63%에 달했다. 이로 인하여 베트남 노동조합은 한 끼당 최소한 9,500동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었다. 여기에 식사의 위생상태도 문제가 자주 되고 있었다. 2009년 빈즈엉의 공장에서만 10번의 집단식중독이 있었다(Tien Phong 2009. 12. 12). 하지만 연구자가 만난 한국계 공장의 매니저는 오히려 노동자가 집단식중독을 가장하여 태업이나 파업을 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놓았다.

이밖에도 직장이 멀어 자전거를 탈 수 없으면 교통비도 월 10~15만 동은 지출해야 했다. 고향의 가족과 직장의 동료 등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30~50만 동짜리 저가 핸드폰을 구입해야 하고 매달 10만 동의 통화료를 지불해야 했다. 의류나 비누와 같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데도 최소 10~20만 동은 소모되었다. 잡비도 전혀 안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주민 노동자가 혼자 생활하는 데 최소한 100~150만 동은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9년 여름과 2010년 초에 연구자가 면접대상자의 평균을 내본 결과, 빈즈엉 노동자는 기본급이 평균 150만 동 정도이고 잔업수당을 합하면 평균 200~250만 동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는 극도의 내핍을 견디며 최저생활이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잔업 등의 수당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민 노동자가 임금인상이나 '13월의 월급'이라고 통칭되는 구정 보너스에 예민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와 같이 열악한 생계여건 때문이었다.

〈사례 3〉 해고노동자의 궁핍한 생활

지난 해 구정에는 빈즈엉에 있는 이 목재회사가 노동자가 북적거렸다. 하지만 올해는 목재가공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이 회사의) 노동자가 800여 명이었지만 2008년에 200명을 해고했고 마침내 문을 닫았다.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임대한 기숙사에도 잡초만 자라자 먹을 것 없는 노동자들은 야생 토마토나 카사바(cassava)를 채취해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 한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12월의 월급 128만 동과 구정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되자 70만 동을 동료 노동자에게 빌려 생활을 꾸렸다고 한다. 월급을 못 받는 동안 생활고가 극심했지만 "나는 이모라도 있어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다른 동료는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다가 이마저도 상점에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Nguoi Lao Dong 2009. 1. 4).

마찬가지로 이주민 노동자, 특히 미숙련공이 회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민감하게 느끼고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지키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궁핍한 생계조건 때문이었다. 회사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잔업이 줄어들면 고향에 송금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생계유지가 힘들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사채를 써야 했다.[7] 설상가상으로,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는 이주민 노동자의 생계조건이 최악의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빈즈엉 공단에서 파업이 수시로 발생하고 불길처럼 퍼져가는 현상 그리고 대조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파업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모두, 원주민의 생활과 대비되는, 이주민 노동자의 열악한 생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5. 공동거주지 '냐쪼'의 사회문화적 재생산과 역할

빈즈엉의 안정된 산업발전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은 외자와 이주민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이었다. 특히 후자는 베트남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수출가공공단(EPZ)과 산업공단(IZ) 건설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전에는 베트남의 남부의 공단이 전국의 노동력을 흡입하는 주요공간이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늘어난 공단으로 노동력이 분산되고 있었다. 그 결과 빈즈엉 정부는 물론이고 빈즈엉 공단의 기업들이 이주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

7)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베트남넷(Vietnamnet)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주민 노동자 가운데 42%가 가끔 그리고 8%가 지속적으로 사채를 이용하고 있었다(Vietnamnet 2009. 9. 12). 이 통계가 빈즈엉의 이주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빈즈엉 이주민 노동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 같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 노동자에게 안정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빈즈엉 정부는 '사회주택(nha o xa hoi)'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한 방에 4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을 800여 호 지어 이주민 노동자에게 싼 값에 임대하거나 판매하려 하였다. 이 밖에도 같은 시기에 160여 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총 4,800ha에 이르는 부지에 10만 호의 아파트(can ho)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빈즈엉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약 2억 달러의 자금이 순조롭게 조달된다면 약 50만 명을 수용하여 이주민 노동자의 거주형태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8)]

자금력이 있는 외국계 회사들도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숙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기숙사를 제공하면 노동자의 지출을 줄여주는 대신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력을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빈즈엉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비엣싱 공단에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몇 개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한 기숙사가 여러 개 있었다. 2010년에 막 건설된 미푹 II 공단에도 대만계 회사가 지은 대형 기숙사가 있었으며 다른 공단의 외부에도 규모가 큰 회사의 외국인 기술자와 베트남 이주민 노동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여러 개 있었다.

연구자가 이런 기숙사들을 방문할 때 놀란 점은 많은 방이 비어 있

8) 빈즈엉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 현재는 201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아파트가 이 지역에 공급되어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빈즈엉 원주민과 외지인 투기세력이 주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노동자가 임대할 수 있는 싼 아파트도 많이 생겨나서 공단노동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단지도 일부 생겨났지만 열악한 주택에 위치한 냐쪼는 여전히 융성하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가 임금은 많이 올랐지만 생계비를 절약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비싼 아파트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회사가 아파트를 임대하여 이주민 노동자에게 기숙사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지만, 이도 냐쪼가 가진 (이 논문의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재생산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하여 노동자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진 2〉 미푹공단 기숙사 전경과 내부

다는 사실이었다. 시설이 냐쪼와 비교할 수 없게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본계 회사가 지은 비엣싱 공단의 기숙사에는 3~4명이 살 수 있는 방이 150개나 있지만 단 12개의 방만 입주자가 살고 있었다. 인접한 곳에 위치한 다른 기숙사는 6개의 회사가 방 한 개에 월 70만 동씩을 주고 임대하여 자사 노동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절반 정도만 차 있었다. 미푹 II 공단에 있는 한 회사의 대형 기숙사는 값싼 거주지가 공단 가까이에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입주해 있었지만 빈 방이 많이 남아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기사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현상은 빈즈엉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단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었다. 호치민의 공단들의 경우에도 회사가 값싸게 제공하고 있는 시설 좋은 기숙사들이 외면당하고 있었다. 인터넷, 세탁기, 정수기, 온수 등을 제공하고 전기세와 물세로 2만 동만 내면 되는 일본계 공장의 기숙사도 수용능력 1,400명 가운데 단 500명만이 입주해 있는 상태라고 했다(Nguoi Lao Dong 2009. 5. 4.).

기숙사에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이주민 노동자에게 이처럼 각 공단의 기숙사를 외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았다. 기숙사의 각종 규칙이 엄하고 경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통금시간이 있어 밖에서 여가시간을 편하게 갖지 못하며 부모나

친지가 방문을 해도 함께 지낼 수가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병영에 갇혀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월세를 지출하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명이었다.

연구자는 이주민 노동자의 궁핍한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시설이 좋은 기숙사에 살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이주민 노동자의 생계비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기숙사에 사는 것이 실제로는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의 대부분의 기숙사는 안전문제 때문에 조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구내식당에서 외부보다 싸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가 많았다.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숙사 음식을 먹다보면 "얼마 가지 않아 질려서" 외식을 자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식비지출이 늘어나 집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상쇄했다. 또한 통금을 지키지 못하거나 친지가 방문했을 때 외박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굳이 기숙사에 살 경제적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경제적 손익보다 중요한 점은 이주민 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사회문화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주민 노동자에게 기숙사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절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기숙사는 선택의 여지없이 낯선 동료와 섞여 살아야 하는 곳일 뿐이었다. 가족이나 동향에서 온 친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문화적으로 원할 뿐 아니라 이런 관계망의 유지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이주민 노동자에게 기숙사는 적합한 삶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주민 노동자가 냐쪼에서 살고 있는 이유와 방식을 탐색하면서 보다 명확해졌다. 대부분의 이주민 노동자는 같은 냐쪼나 인근의 냐쪼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었다. 실제로 냐쪼를 방문하면 세입자들이 가족, 친지, 동향출신자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을 방문하면 같은 지역 출신이 상당수를 점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사례 4 참조). 냐쪼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관계망은 이주 직후 구직을 할 때 뿐 아니라, 향후 이직이 필요하거나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했다. 이러한 관계망을 활용할 수 없다면 '직업교육센터(co so day nghe)'에서 훈련을 받은 뒤 구직할 때 중개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거나 노동조건이 좋지 않아 이직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었다(Vietnamnet 2009. 9. 12.).

〈사례 4〉 빈딩 출신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한 기업

빈딩(Binh Dinh)은 북부의 농촌지역이다. 이곳에서 온 노동자는 훈육이 잘 되어 부지런하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이로 인해 승진도 잘 한다. 이들은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약 10년 전부터 농민을 흡수할 일자리가 없는 빈딩에서 빈즈엉으로 대량(약 7천 명)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 동안 쌓은 명성 덕택에 이곳 출신 노동자는 일자리를 쉽게 구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잔업을 잘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빈딩 출신 노동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노동가 이 지역 출신자이다. 조상숭배를 위하여 가정에 설치하는 제단을 만드는 일본계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빈딩 출신이다(Nguoi Lao Dong 2009. 5. 22).

가족, 친인척, 동향출신으로 이루어진 냐쪼의 사회적 관계는 육아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냐쪼에 가면 여성 이주민 노동자들이 아이를 공동으로 돌보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영아의 경우 2010년 당시의 노동법상 출산휴가는 4개월인 반면, 7개월이 지나야 영아원에 맡길 수 있었다. 게다가 빠듯한 생계여건을 고려하면 50만 동 이상이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친인척이나 친지가 서로 교대시간을 맞추어 아이를 돌보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이런 연유로 때론 육아를 위하여 고향에서 놀고 있는 할머니를 모셔와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돌보게 하는 사례도 몇 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이처럼 냐쪼는 혈

〈사진 3〉 전형적인 냐쪼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

연과 고향을 매개로 한 연줄을 이용하여 이주민 노동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게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냐쪼는 이처럼 여러 가지 기능적인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궁핍한 생활여건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쉬운 이주민 노동자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강도 높은 노동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면 피로회복을 위하여 잠을 자거나 밀린 가사를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이주민 노동자의 일상이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인 삶은 "물밖에 없는 수프(bat canh nuoc la)"에 비유되었다(Nguoi Lao Dong 2009. 9. 9.).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여유가 없는 이주민 (특히 독신)남성노동자는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불구하고 음주, 도박, 매매춘, 마약 등으로 일탈을 꿈꾸기도 했다. 실제로 월급날이 되면 공단인근의 미용실, 마사지 가게, 카페 등에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이 이주민 남성노동자를 유혹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빈즈엉의 송탄공단의 월급날을 취재한 한 기사에 따르면 일부 젊은 이주민 남성노동자는 "하얗게 밤을 세우며(trang dem)", 쌀로 만든 값싼 와인을 마신 다음, 싼 값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여성을 찾는다(Tien Phong 2009. 4. 28.). 연구자가 공단노동자가 주말에 붐빈다는 "오두막 카페(ca phe choi)"를 방문했을 때 면접에 응한 여성종업원도 약 5만 동(2.5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오두막에서 여성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주민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도 외로운 타지에서 혼자 지내면서 동년배 남성을 만나 사귀다가 동거(song thu)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동거의 문제는 여성을 희생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종종 낳는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가 임신하면 남성노동자가 도망을 가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 결과 외지에서 혼자 임신을 한 이주민 여성노동자는 낙태를 시도하거나, 태어난 아이를 유기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는 신문기사를 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Nguoi Lao Dong 2008. 12. 14. 참조).

냐쪼가 이주민 노동자의 이처럼 열악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일관되게 기능하고 있었다고 말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이 냐쪼에 살고 있는 (특히 독신) 이주민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냐쪼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잠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냐쪼에 같이 사는 가족과 친지들의 일상적인 교류가 타지에 사는 이주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문화적 결핍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냐쪼를 중심으로 고향과의 정서적 끈을 이어가고, 스스로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상호조력을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타지에서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을 일정 부분 치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냐쪼는 사회문화적 욕구의 충족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도 적극 활용되었다. 이주민 노동자는 냐쪼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연계망과 정서적 유대감을 활용하여 각 회사의 노동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논의했다. “너희 회사는

얼마나 받느냐?"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처럼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옆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 20만 동을 더 받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우리 공장도 임금인상을 하게 하려면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 하면 주동자로 찍히는 사람 없이 임금인상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연구자에게 냐쪼의 이주민 노동자들은 이런 일상적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적 전략을 모색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공식적인 지도력과 조직이 부재한 와중에도 빈즈엉의 이주민 노동자가 (노조지도부를 통하지 않는 형태의 파업인) 살쾡이(wildcat) 파업을 필요할 때마다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냐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유대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냐쪼를 중심으로 가족, 친인척, 동향이라는 연고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실천방법과 전략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냐쪼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이주민 노동자로서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공유하고 파업의 필요성과 정치적 위험성을 공감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7. 결어: 빈즈엉 이주민 노동자의 저항과 미래

파업의 부침이 가장 심했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자가 현지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베트남 남부 공단의 외국계 기업 경영자들은 빈즈엉의 노동관계가 인근 지역과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고 진술하곤 했다. 실제로 빈즈엉과 비교할 때 이웃에 위치한 동나이, 롱안, 호치민 외곽의 구찌 등은 산업화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숙련공이 많거나 원주민의 비율이 높아 파업이 매우 조직화되어 있었다. 파업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낫고 "텃세"를 부릴 수 있는 원주민 노동자

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도도 셌다. 하지만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파업의 주동자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또한 강성인 원주민 노동자를 "일단 길들여" 놓으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경영진도 많았다.[9)]

반면 빈즈엉은 산업화의 역사가 짧고 원주민 숙련공이 적어 파업이 조직적이지 못한 것이 명백해 보였다. 또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주민 노동자가 노동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숙련 노동자가 많아 회사의 경기에 따라 파업의 부침이 상대적으로 심했다. 빈즈엉에는 일자리를 잃어가면서까지 파업을 할 수 있는 생활여건이 되지 않는 이주민 (특히 미숙련)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웃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시도 때도 없이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그 결과 경기가 좋을 때면 파업이 불길처럼 공단 전체로 확산되곤 했다. 설상가상으로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파업의 주동자가 명확하지 않아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Do Quynh Chi 2011 참조).

빈즈엉에서 이런 형태의 파업이 지금까지도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파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이주민 노동자 특히 미숙련공의 궁핍한 경제여건 때문으로 보인다(Loi 2005 참조). 하지만 이들이 이런 형태의 파업을 전개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연결망과 문화적 공감대가

9) 동나이에 있는 한국계 섬유공장의 경영자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동나이 지역에 파업 전문 브로커가 등장했다고 한다. 원주민 노동자는 텃세가 세고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 회사에 한번 길들여지면 파업을 잘 일으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파업을 일으키고 돈을 받는 원주민 조직폭력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몇 기업에서 이런 외부세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경영자는 조직폭력배와 경찰이 모두 원주민 출신이라 "한 통속"이라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민 노동자가 가족, 친족, 동향친지와 일상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지연구 당시 냐쪼라는 공동거주지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빈즈엉 정부도 이미 살쾡이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이주민 노동자와 냐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 결과 빈증엉 정부의 노동관련 부서들은 공동으로 '관리위원회(Ban Quan Ly)'를 만들어 파업의 확산을 막을 여러 정책을 실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냐쪼의 이주민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제공하기도 했다.[10] 또한 공산당의 세포조직이나 공안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냐쪼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자율방범대까지 조직하였다(Nguoi Lao Dong 2007. 10. 31.).

베트남 정부의 차원에서도 '국가단위의 감시 세포조직(state surveillance cells)'으로서 공장에서는 '사회여론 세포조직(to du luan xa hoi)'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에서도 '노동자 자치 세포조직(to cong nhan tu quan)'을 가동하고 있었다(Tran 2014: 265-267). 이들은 집주인, 노동자 대표, 경찰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이주노동자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중앙정부도 나쪼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결속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베트남 중앙정부와 빈즈엉 지방정부의 노력은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이들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살쾡이 파업이 일어나는

10) 신상명세서는 빈즈엉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빈즈엉 관리위원회는 2009년 후반기까지 약 7만여 명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 등에 제공하였다. 물론 신상명세서가 이주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빈즈엉 노동자의 대다수가 이주민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신상명세서에는 개인 신상은 물론 상벌상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빈즈엉 산업관리공단 보고서 2009. 9. 28. 참조).

근본적 원인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주민(특히 미숙련)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정치과정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당장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외자유입이 줄거나 외국계 기업이 이주해 나가며 생기는 혼란을 두려워하며 미봉책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자본투자와 공안(公安)에 방점을 두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펼치는 노동 친화적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Tran 2014: 281).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해고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해고노동자의 생계를 돕지 않는 것은 물론 타지에서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까지 본 연구에서 민족지적으로 기술한 현실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파업을 줄이기 위하여 세워왔던 여러 대책들이 파업의 근본적 원인에 근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은 줄곧 재생산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빈즈엉 이주민 노동자가 자신의 생계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대응방식도 한계를 가지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파업문제를 전공하는 어느 베트남 학자는 연구자에게 베트남 노동자들이 "당장 눈에 보이고 획득 가능한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빈즈엉의 이주민 노동자들 역시 정부당국과 경영진의 눈치를 보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불만을 표현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급급할 뿐이었다. 그 결과 정치적 역능화(empowerment)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틀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시선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빈즈엉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연결망과 문화적 유대감을 때에 따라 활용하고, 상황에 따른 단기적 대증요법을 계속 사용하는 한 이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요원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살쾡이 파업을 활용한

임시방편적 임금인상요구도 생활개선을 위한 대증요법으로서조차 효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빈즈엉의 민족지적 사례는 이주민 노동자가 노동권, 거주권, 거주지 환경, 의료, 복지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정치적 조직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실망과 시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성찰하도록 만들고 있다.

실제로 현지연구 기간에도 빈즈엉에는 "지역에서 정치적 권력을 형성하려고 노력"(Hansson 2003: 15)하기보다, 현실에서의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귀향을 선택하는 이주노동자가 점차 늘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고향 인근에 새로이 조성된 공단에서 일자리를 찾아 귀향을 한 경우도 제법 있다(Jandl 2008). 고향에서 일을 할 경우 임금은 적지만 생활비가 싸고 가족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 북부와 중부에 조성된 공단에서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Ngoui Lao Dong 2009. 2. 10).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주민 노동자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었다(Vietnamnet 2009. 9. 12.). 이러한 선택들이 자신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갖는 또 다른 미봉책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버러워이(Burawoy 1985: 9)가 강조한 대로 노동자 계급이 버려지는 것은 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원인들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민족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빈즈엉 이주민 노동자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동일한 방식과 형태의 파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파업의 목적과 형태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빈즈엉 이주민 노동자의 삶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긍정적 변화가 오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3일

참고문헌

채수홍

2003 "호치민 시의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비교문화연구』9(1): 75-108.

2013 "베트남 살쾡이 파업의 양상과 원인: 남부 빈즈엉(Binh Duong)을 중심으로,"『동남아시아연구』23(2): 1-48.

Awad, Ibrahim

2009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Migrant Workers: Impact and Response*, Geneva: International Labor Office.

Blim, Michael and F. A. Rothstein(eds.)

1992 *Anthropology and the Global Factory: Studies of the New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ergin & Garvey.

Burawoy, Michael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Verso.

Chae, Suhong

2015 "Review Article on Ties That Bind,"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3(2): 386-387.

Clarke, Simon, Chang-Hee Lee, and Do Quynh Chi

2007 "From Rights to Interests: The Challenge of Industiral Relations in Vietnam,"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9(4): 545-568.

Do, Quynh Chi

2008 "The Challenge from Below: Wildcat Strikes and the Pressure

for Union Reform in Vietnam,"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Vietnam Update: Labor in Vietnam.

2011 "Employee Participation in Vietnam," *Vietnam-ILO Industrial Relations Project Report*.

Do, Quynh Chi, Vu Minh Tien, and Vu Thanh Duong

2011 "Trends of Labor Strikes, 2010 and 1st Quarter of 2011," *Vietnam-ILO Industrial Relations Project Report*.

Hansson, Eva

2003 "Authoritarian Governance and Labor: The VGCL and Party-state in Economic Revolution," in Ben J. Tria Kervliet, Russel H. K. Heng, and David W. H. Koh, eds., *Getting Organized in Vietna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p. 153-184.

Jandl, Thomas

2008 "The Changing Relations of Labor Migration and Tax Allocation in Vietnam: Is There a Federalism Problem among Early and Late Developers?," *WISC Second Global International Studies Conference Ljubjana*.

Kerkvliet, Ben

2011 "Workers' Protests in Contemporary Vietnam," in Anita Chan, ed., *Labor in Vietna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p. 160-210.

Kim, Jee Young

2007 "Governance beyond Borders: Anti-sweatshop Regulation in Vietnam's Fashion and Footwear Industrie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Harvard University.

Lee, Chang-Hee

2006 "Industrial Rel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in Vietnam," Hanoi: ILO office in Vietnam.

Lee, Ching Kwan

1998 *Gender and the South China Miracle: Two Worlds of Factory*

Wome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i, Cu Chi

2005 "Rural to Urban Migration in Vietnam," in Ha Huy Thanh and S. Sakata, eds., *Impact of Socio-economic Changes on the Livelihoods of People Living in Poverty in Vietnam*, Toky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pp. 115-143.

Marr, David G. and Christine P. White(eds.)

1988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n Program.

Nadvi, Khald, John T. Thoburn, Bui Tat Thang, Nguyen Thi Thanh Ha, Nguyen Thi Hoa, Dao Hong Le, and Enrique Blanco de Amas

2007 "Vietnam in the Global Garment and Textile Value Chain: Impacts on Firms and Worker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6: 111-23.

Norlund, Irene

1997 "Democracy and Trade Unions in Vietnam: Riding a Honda in Slow Speed," paper to the 49th meeting of American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in Chicago.

Pravda, Alex and Blair Ruble(eds.)

1986 *Trade Unions in Communist States*, Boston: Allen & Unwin.

Tran, Ngoc Angie

2007 "The Third Sleeve Emerging Labor Newspapers and the Response of the Labor Unions and the State to Workers' Resistance in Vietnam," *Labor Studies Journal* 32(2): 257-279.

2014 *Ties That Bind: Cultural Identity, Class, and Law in Vietnam's Labor Resist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Trinh Thuc Huynh et al.

2003 *Binh Duong: The Va Luc Moi Trong The Ky XXI* (빈즈엉, 21세기의 새 이미지), Binh Duong Province.

Wang, Hong-Zen
2005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Labor Rights: Vietnamese Trade Unions in Taiwan-invested Compan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56: 43-56.

자료

베트남 노동사회원호국
2009 *Thuc trang cung-lao dong va nhung giai phap*(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현실과 대책), 베트남 노동사회원호국 보고서: 233/BC-LDTBXH(미간행).

빈즈엉 산업관리공단
2009 *Ban quan ly cac KCN tinh Binh Duong voi ket qua ly nha nuoc ca doanh nghiep KCN nhung thang dau nam 2009*(2009년 국가의 산업공단 관리정책에 따른 빈즈엉 산업공단의 관리, 빈증엉 산업관리공단 보고서(미간행).

KOCHAM(한인상공인연합회)
2009 『Kocham Directory: 베트남 한국진출기업 디렉토리』, Ho Chi Minh City: Kocham.

신문기사

Nguoi Lao Dong
2007 "Thanh lap 6 to CN tu quan(6개의 노동자 자율방범대 창립)," 2007년 10월 31일자.
2008 "Than phan nu cong nhan sau anh den khu cong nghiep xot xa doi cong nhan 'song thu'(공단의 찬란한 불빛 아래서 고통스러워하는 동거 여성노동자의 운명)," 2008년 12월 14일자.
2009 "Cong nhan bi day ra duong: Ac mong giua ban nagy(밖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낮 동안의 악몽)," 2009년 1월 4일자.
"Cong nhan mat viec tran lan(노동자의 실업 확산)," 2009년 2

월 10일자.
“Binh Duong: cong nhan o tro duoc mua nuoc sach gia re(빈즈엉: 이주민 노동자가 싼 값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다),” 2009년 3월 7일자.
“Cong nhan khong ‘man’ nha luu tru(이주노동자는 기숙사를 싫어한다),” 2009년 5월 4일자.
“Cong nhan Binh Dinh(빈딩 출신 노동자),” 2009년 5월 22일자.
“Khi doi song tinh than nhat nhu...bat cu nuoc la(물밖에 없는 수프 같은 일상생활),” 2009년 9월 9일자.

Tien Phong

2009 “Sinh hoat van hoa danh ho cong nhan khong co(노동자에게는 문화생활이 없다),” 2009년 4월 28일자.
“Chat luong com cua cong ty(회사의 음식의 질),” 2009년 12월 12일자.

Vietnamnet

2009 “Lao dong nu nhap cu doi mat nguy co buon ban nguoi(몸을 팔 위험에 있는 이주여성노동자),” 2009년 9월 12일자.

〈Key concepts〉: history of industrialization,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Vietnam, labor politics, resistance

History of Industrialization,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and Worker's Resistance:

An Ethnographic Study of Binh Duong Province

Chae, Suhong*

This article is an ethnographic study based on fieldwork conducted from the summer of 2008 to early 2010 in Binh Duong, an industrial area in south Vietnam. This ethnography intends to deal with three aspects.

First, I will describe the history of industrialization in the area. In doing so, I will explain how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ere deeply associated with the workers' sensitive responses to the economic cycle, consumer prices, wages, and labor markets as well as their particular ways of resistance.

Second, this ethnography explores the socio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native people and domestic immigrant workers. In addition, I will show that socioeconomic conditions are also different among immigrant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ir skills and positions in the factorie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rd, this study attends to the ways in which immigrant (especially unskilled) workers coped with their unfavorable living conditions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social relations and cultural assets.

In sum, while exploring the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and the social cultural characteristics formed historically and found in this industrial area,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potentiality and limitations of workers' attempts to empower themselves.